

Transport Valuechain Daily



2022. 9. 22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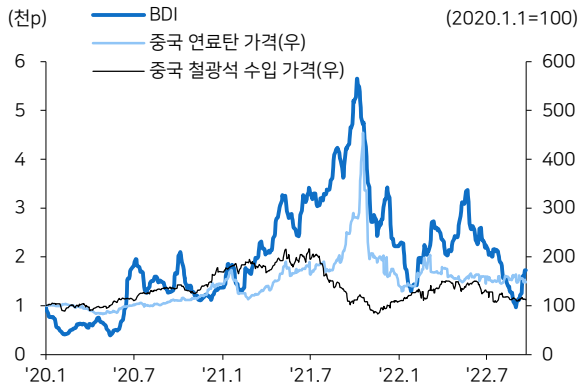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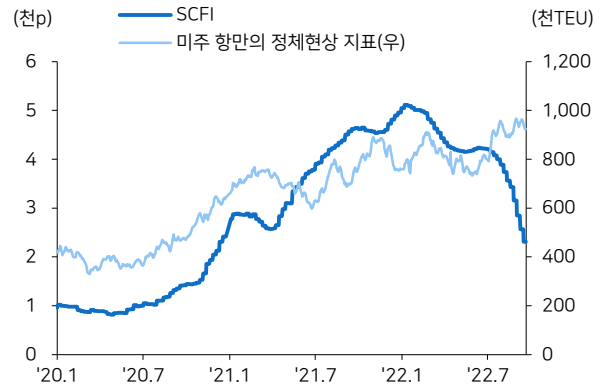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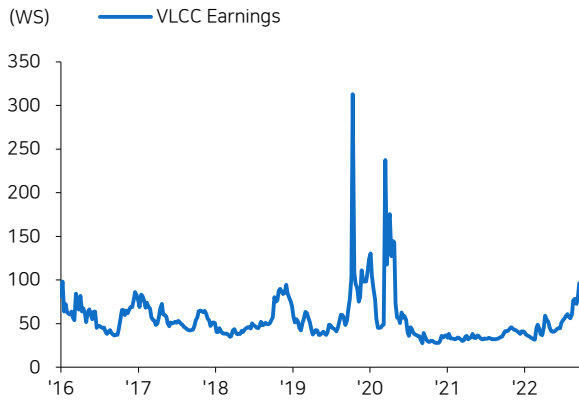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46.0p(+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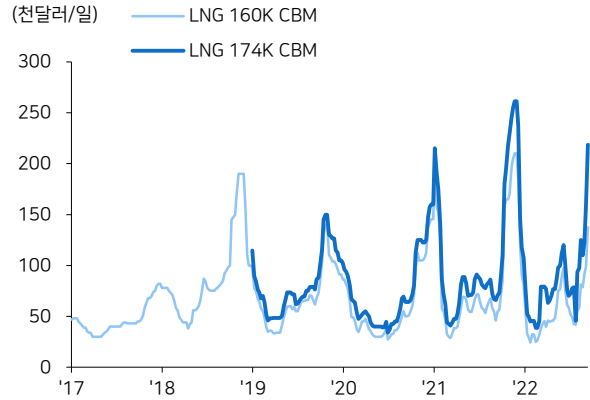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312.7p(-249.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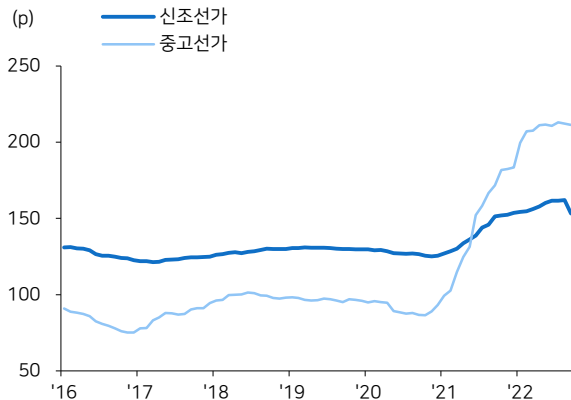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6.9p(+18.1p WoW)



LNG Spot 운임 137.5p(+38.8p WoW)
218.8p(+6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3.6p(-8.8p WoW)
211.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27.7p(-4.0p DoD)
85.0p(-2.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그룹, 미국 팰란티어와 손잡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 속도

현대중공업그룹이 팰란티어의 기업용 빅데이터 플랫폼 '파운드리'를 조선 부문 전 계열사에 도입한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FOS'(Future of Shipyard)프로젝트의 일환임. 현대중공업그룹은 2030년까지 스마트조선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연합 뉴스)

Greek owner Dynagas moves in on Chinese yard berths for super-size LNG carriers

그리스 Dynagas가 대규모 LNG운반선 최대 4척을 중국 Dalian Shipbuilding에 발주할 예정으로 보도됨. 현재 200,000CBM급 LNG 선 2척 LOI 체결 직전이고, 2척의 옵션분 포함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언급됨. 인도일자는 2026~2027년이 될 예정임. 중국 조선소가 통상 제시하는 선가는 약 2.35억달러 수준이나, 일반 174K, 180K급보다 큰 선박으로 비용이 비싸질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Delivery dates pushed out again for raft of Mozambique LNG newbuildings

TotalEnergies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신조 LNG선 17척 중 절반가량의 인도일정이 약 6개월 미뤄졌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8척이 2026년 3월~2027년 3월 중 인도로 연기됨. 일부 주주들이 FID를 2023년에 결정하며 프로젝트 시작일이 연기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일부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9척의 인도기한도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차질이 없다고 언급함. (Tradewinds)

Eni moves to start FLNG exports as deadline looms for second unit

두번째 FLNG 발주기한이 다가오며 모잠비크 Corul-Sul FLNG 첫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도됨. 모잠비크 Area 4에 위치한 Coral-Sul은 10월 14일경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Eni는 행정적인 이유로 생산지연이 있었다고 설명함. 한편, Coral-Sul을 건조한 삼성중공업은 LNG선주 및 기타 프로젝트로 인한 야드 부족으로 두번째 FLNG 발주기한을 10월말로 제시한 바 있음. 업계전문가는 Eni가 기한 내 발주하지 않으면 다른 미국 에너지업체가 바로 발주할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러, 중국 가스공급 1주일 중단... 시진핑에 불만? 우연의 일치?

러시아 가스프롬이 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통한 중국 가스공급을 22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보도됨.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조선일보)

미국 상원,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국-인도 제재 법안 발의

미국의회에 주요 7개국에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어긴 국가와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됨.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매년 3분의 1씩 상한 가격을 낮춰 3년 이내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이익을 내지 못하도록 함. 상한가격 초과 구매 시 2차 제재를 부과할 계획임. (동아일보)